



 <p>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</p> <p>http://www.emerics.org/</p> <p>2019. 02. 28. 인도남아시아</p>	<p>「동향세미나」</p> <p>인도 2019/20년 잠정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</p> <p>작성 김도연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)</p>
---	---

- 2019년 2월 1일 인도 정부는 2019/20년 잠정 예산안을 발표함.
- 이번 예산안은 현 모디 정부 임기 내 발표하는 마지막 예산안으로, 5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 ‘잠정 예산안’임.¹⁾
 - 2019/20년 예산은 27조 8,420억 루피(약 440조 원)로 2018/19년 예산 대비 13.3% 증액되었음.

표 1. 2019/20년도 예산안 개요

(단위: 천만 루피)

구분	2018/2019*	2019/2020	증가율	주요 구성
총 수입	18,22,837	20,80,201	14.1%	법인세 21%, 통합간접세 21%, 소득세 17%, 채권발행 외 19%
총 지출	24,57,235	27,84,200	13.3%	중앙정부 예산 지출(주정부 이전) 23%, 이자 지출 18% 중앙정부 정책자금 21%
재정적자 규모	6,34,398 (3.4%)	7,03,999 (3.4%)		

주: *2018년 revised budget 기준임.

자료: 인도 재무부.

- 주요 부문별 지출 계획으로는 △ 농업 및 연관 산업 △ 조세행정의 지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70% 이상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.
- 그 외 건강(13.6%), 교육(12.2%), 도시 개발(11.85%) 분야의 증가율이 높았으며, 상업 및 에너지 분야의 지출 계획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표 2. 주요 부문별 지출 계획

	2018/19	2019/20	증가율	비중
국방	2,85,423	3,05,296	7%	11%
농업 및 연관 사업	86,602	1,49,981	73.2%	5.4%
농촌 개발	135,109	138,962	3%	5%
상업 및 산업	28,394	27,660	-2.6%	1.0%
교육	83,626	93,848	12.2%	3.4%
건강	55,949	63,538	13.6%	2.3%
사회 복지	46,492	49,337	6.1%	1.8%
교통	145,399	1,56,187	7.4%	5.6%
도시 개발	42,965	48,032	11.8%	1.7%
조세행정	67,448	1,17,285	73.9%	4.2%
에너지	46,150	44,101	-4.4%	1.6%

자료: 인도 재무부.

1) 인도정부 예산안은 통상 2월에 의회에 상정되며, 이후 의결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집행하나 총선 및 중앙 정부의 사정으로 full budget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잠정 예산안을 발표함. 총선 이후 구성된 의회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확정함. 인도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~이듬해 3월 31일임.

표 3. 농업 및 조세행정 관련 세부 내용

분류	주요 내용
농업 및 연관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M-KISAN(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)*제도 시행 : 영세 농가(2헥타르 이하 토지 소유)에 연간 6,000루피(약 9만5천원)를 계좌로 직접 지급 - MSP(Minimum Support Price) 범위 확대 : 총 22종의 곡물에 생산가격의 1.5배를 책정해 구매 - 전용 카드(KCC)를 통해 대출 받는 축산업 및 어업 종사자에게 이자 보조금 지급 - 어업 관련 별도의 조직(수산부) 신설 예정
조세 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: 기존 연소득 25만 루피 → >50만 루피 - 임금생활자 및 연금생활자를 대상으로 표준 공제 한도 상향 조정: 4만 루피 → >5만 루피 - 은행 등으로부터의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공제(TDS**)한도 상향 조정: 기존 1만 루피 → 4만 루피로 인상 - 모든 세금 및 환급 업무의 온라인화 추진

*농민 임금 보전제도를 뜻함., *TDS: Tax Deducted at Source
자료: 인도 재무부.

- [연금] 건설업, 노점상 등 비공식 분야(unorganised sector) 종사자(월 소득 15,000루피 이하)를 대상으로 60세부터 월 3,000루피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함.
- [국방] 인도 역사상 최초로 3조 루피가 넘는 규모를 배정함.
- [인프라 개선] (철도)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,800억 루피 배정, (북동부 지역 인프라) 작년 대비 21% 증액한 5,166만 루피를 배정함.
- [주택] 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환급 혜택 확대 및 미분양, 명목상 임대에 대한 세금 부과 면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.
- [재정적자] 2021년까지 3%로 축소할 계획임.
- 2017/18년도 기준 인도 국가부채는 GDP대비 46.5%이며, 2024-25년까지 40%대로 줄일 계획임.

□ 이번 잠정 예산안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발표된 만큼 ‘시혜적 예산’이 될 것이라는 현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, 농민과 중산층, 피고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‘선물 상자’라고 평가받음.

- 농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배경으로는 2014년 모디 총리 당선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농가 민심이 ‘反 BJP 세력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.²⁾
- 2014~18년 농업분야 연평균성장률은 2.86%로 제조업(8.8%)과 비교해 매우 저조하며, 최근 양파 및 감자 등 인도 주요 농산물 가격이 1/20 수준으로 폭락함.

2) 모디 총리는 2014년 총선 시 농민 소득을 2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2018년 12월 실시된 인도 중북부지역(힌두벨트 및 농업중심지역) 5개 주의회 선거에서 BJP가 패하는 결과가 나타남. 농촌지역에는 인도 전체 인구의 약 66%가 거주하고 있음.(World Bank 2018)

- India Today의 농민 인터뷰에 따르면, 대다수가 현금 지원책은 생활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며 모디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함.
- 한편 인도 중앙은행은 무담보 농가 대출한도를 기존 10만 루피에서 16만 루피로 상향하고 기준금리도 6.25%로 25bp인하하는 등 정부의 경기부양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.

EMERiCs